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字形 확정 기준 및 字形 수정 양상

金 永 玉*

<目 次>

I. 서론	Ⅲ.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字形 수정 양상
Ⅱ.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字形 확정 기준	Ⅳ. 결론

<국문 초록>

본 논문은 2000년에 조정되고 공표되어 현재 한문 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字形 확정 기준을 검토하고, 2000년 이후 진행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형 수정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형은 2000년에 조정되어 공표된 후, 2002년의 『교과서 편수 자료』에서 수정되었으며, 또 2007년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서 수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자형 확정 기준을 살펴보고, 또한 이에 따라 진행하였던 한자 자형의 수정 양상을 검토하였다.

2000년에 공표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자형의 확정 기준은 ‘한자의 자형은 본체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강희자전』의 자형을 기준으로 하되 현재 널리 통용되는 자형을 고려한다.’였으며, 2007년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

* 북경외국어대학 강사 / angelok72@hanmail.net

의점 및 검정기준』에서는 이를 일부 수정하여 『강희자전』의 자형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즉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자형 확정의 기준은 『康熙字典』의 正字 자형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서는 『강희자전』의 正字 자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기존의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자형을 조정하면서 10개의 한자 자형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강희자전』의 정자로 조정한다는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는 '強→**強**, 涼→**涼**, 絕→**絕**, 隣→**鄰**, 戲→**戲**, 栢→**柏**, 兎→**兔**'이고,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姉→**姊**, 況→**況**'이며, '獎→**獎**'의 조정은 기존 '기초 한자'의 자형을 오인하고 제시한 것이었다.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는 한자·한문의 교수·학습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 그러나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자형 확정의 기준과 이에 따라 수정하여 제시한 자형에 여전히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자 자형 학습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형 확정 기준에 대한 검토와 그것을 표준적으로 적용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한자 자형 확정 기준, 『교과서 편수 자료』,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正字, 『康熙字典』

I. 서론

본 논문은 2000년에 조정되고 공표되어 현재 한문 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¹⁾의 字形 확정 기준을 검토하고, 2000년 이후 진행된 '기초 한자'의 자형 수정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연

1) 아래에서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기초 한자'라고 略稱하겠다.

구의 목적으로 한다.

현재 한자·한문 교육의 기준이 되고 있는 ‘기초 한자’는 2000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존의 ‘기초 한자’를 조정하여 공표한 것이다.²⁾ 그런데 2000년에 공표된 ‘기초 한자’의 자형 중에는 惑을 惑으로 잘못 제시하거나, 情, 精, 晴, 淸, 請과 靜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部件을 靑과 靑의 서로 다른 형태로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³⁾ 또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백서』에서 ‘기초 한자’의 자형 확정 기준으로 제시한 『康熙字典』⁴⁾의 正字 자형⁵⁾에 부합하지 않는 자형

2) 2000년에 조정하여 공표된 ‘기초 한자’ 자형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호성,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문제 - 한문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연구 개발에 즈음하여 -」, 『동방한문학』 29, 동방한문학회, 2005.; 兒島慶治, 「日本語教育と韓國の漢字字形 - 184個の獨立字形」, 『日語教育與日本文化研究』, 臺灣日語教育學會編, 2006.; 이돈석,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한문 교과서 『검정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의 특징과 문제점」, 『동방한문학』 40, 동방한문학회, 2009.; 양원석,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字形과 字序에 대한 管見」, 『동양한문학연구』 28, 동양한문학회, 2009.; 양원석, 「한국의 漢字 字形 規範化 방안 시론」, 『Journal of Korean Culture』 17, 한국어문학국제 학술포럼, 2011.; 김영옥,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와 한문 교과서의 자형 비교 연구」, 『한자한문연구』 7,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2011.; 김영옥,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형 연구 - 『강희자전』 자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37, 한국한문교육학회, 2011.; 김영옥, 「漢文 教育用 基礎 漢字 字形 標準化 研究」,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3) 김영옥,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와 한문 교과서의 자형 비교 연구」, 『한자한문연구』 7,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2011.; 김영옥,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형 연구 - 『강희자전』 자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37, 한국한문교육학회, 2011.; 김영옥, 「漢文 教育用 基礎 漢字 字形 標準化 研究」,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4) 張玉書 纂著, 『康熙字典』, 北京: 中華書局, 1958. 아래에서 인용한 『康熙字典』은 모두 이 책을 기준으로 하겠다.

5) 교육인적자원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백서』, 2000, pp.138-146.; 교육인적자원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2000, pp.5-9.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는 『한문 교육용

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⁶⁾

이러한 ‘기초 한자’의 자형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2년에는 기존의 ‘기초 한자’에 사용된 글꼴을 수정하여 『교과서 편수 자료』⁷⁾에 수록하였다. 그러나 『편수 자료』에서 수정하여 제시한 ‘기초 한자’는 2000년 조정 발표된 ‘기초 한자’를 유지하되 글꼴만을 바꾸어 제시한 것으로 『康熙字典』의 正字 자형과 부합하지 않는 자형에 대한 수정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2007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⁸⁾을 편찬하여 기존 ‘기초 한자’의 일부 자형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즉 『검정기준』의 내용 중 ‘편찬상의 유의점’ 부분에서, 2000년의 ‘기초 한자’의 자형 중 『康熙字典』의 正字 자형과 다른 형태로 쓰인 자형을 『康熙字典』의 正字 형태로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한자는 총 10개인데, 그것은 2000년에 발표된 ‘기초 한자’의 ‘强, 凉,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백서』의 내용 중 요점을 정리하여 문서 형태로 발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자료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백서』’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를 ‘『조정 백서』’라고 略稱하겠다.

6) 김영옥, 「漢文 教育用 基礎 漢字 字形 標準化 研究」,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p.89-163.

7) 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 편수 자료 II-1 인문·사회 과학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초판, pp.55-69.

2002년 『교과서 편수 자료』는 2000년에 조정·발표된 ‘기초 한자’ 자형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한문 교과서 편찬에 있어 『교과서 편수 자료』에 수록한 ‘기초 한자’의 자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 편수자료II-1 인문·사회 과학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2, p.56.) 또한 동일한 내용의 『교과서 편수 자료』를 2007년에도 발행하였다. 이하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교과서 편수 자료』’는 ‘『편수 자료』’로 略稱하겠다.

8) 이하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검정기준』’으로 略稱하겠다.

姉, 絕, 隣, 獎, 況, 戲, 栢, 兎’를 ‘強, 涼, 姊, 絕, 鄰, 獎, 況, 戲, 柏, 兎’로 수정한 것이다.

본론에서는 먼저 2000년의 『조정 백서』, 2002년의 『편수 자료』, 2007년의 『검정기준』 등에서 제시한 ‘기초 한자’ 字形 확정 기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이어서 2007년의 『검정기준』에서 수정하여 제시한 이상의 10개 한자를 대상으로 하여 『康熙字典』의 正字 자형과의 부합 여부 및 자형 수정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초 한자’ 자형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한자 자형 표준화 연구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II.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字形 확정 기준

한문 교육용 한자에서 자형 확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은 2000년 ‘기초 한자’가 조정 발표되었을 때이다. 이전인 1972년에 제정된 ‘기초 한자’에서는 ‘1자가 둘 이상의 음과 體를 가진 것은 그 하나만 취하였으나 실제 지도에 있어서는 다 지도한다.’⁹⁾라고 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자형을 가진 한자의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자형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즉 2000년 이전 ‘기초 한자’ 제정에 있어서 어떤 자형을 ‘기초 한자’의 자형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 제정한 ‘기초 한자’의 자형 확정 기준은 아래 『조정 백서』의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다.¹⁰⁾

9) 조선일보, 1972년 8월 17일 기사. 기사 제목 : ‘基礎漢字 固有名詞엔 例外’. ; 정우상, 「한문과 교육정책과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선정」, 『한자한문교육』 창간호,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994, p.77. 참고.

10) 교육인적자원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백서』, 2000, p.143.; 교육인적자원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VI. 배열 원칙

- 한글 맞춤법 자모 순서에 따름.
- 동일 음 내에서는 부수 순서를 따름.
- 본체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강희사전(康熙字典)의 자형을 기본으로 하고, 널리 통용되는 자형도 고려함.

➔ 氏는 雙자 뒤로, '변'음 邊은 '편'음으로 옮김.
 ➔ 强, 負, 絶은 본체자가 아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형임.

11)

3.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배열 원칙

가. 한자의 배열은 한글 맞춤법에 규정한 자모 순서 및 부수 순서에 따른다.

나. 음이 둘 이상의 한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음을 취한다.

다. 한자의 자형은 본체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강희사전의 자형을 기본으로 하되 현재 널리 통용되는 자형을 고려한다.)

12)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 하였습니다』에서 제시한 자형 확정 기준은 ‘한자의 자형은 본체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강희사전』의 자형을 기준으로 하되 현재 널리 통용되는 자형을 고려한다.’이다.

2002년과 2007년에 발간된 『편수 자료』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초 한자’ 자형 선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이상에서 살펴본 2000년의 『조정 백서』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2000, pp.5-9.

11) 교육인적자원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2000, p.5.

12) 교육인적자원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2000, pp.8-9.

3.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배열 원칙

- 가. 한자의 배열은 한글 맞춤법에 규정한 자모 순서 및 부수 순서에 따른다.
- 나. 음이 둘 이상의 한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음을 취한다.
- 다. 한자의 자형은 본체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희자전의 자형을 기본으로 하되, 현재 널리 통용되는 자형을 고려한다.)

13)

2007년에는 『검정기준』의 내용 가운데 한문과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부분에서, 2000년에 개정된 ‘기초 한자’ 중 일부의 자형을 수정하였는데, 이 때 제시한 ‘기초 한자’ 자형 확정 기준 및 수정한 자형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3) 한자의 자형(字形)은 『강희자전(康熙字典)』의 자형을 기본으로 한다. 2000.12.30 교육부에서 공표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중 일부 글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기로 수정한다.

음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제외자(2000. 12. 30)	비 고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강	強 → 強			속자를 정자로 조정
강	涼 → 涼			
근		隣 → 鄰		
사	姉 → 姊			
장		獎 → 獎 (‘犬’→‘犬’)		
절	絶 → 絕			
황		況 → 況		
희		戲 → 戲		
백			栢 → 栢	
토			兔 → 兔	

14)

- 13) 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 편수자료Ⅱ-1 인문·사회 과학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2, p.56.; 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 편수자료Ⅱ-1 인문·사회 과학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7, p.56.
- 14)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여기서는 ‘기초 한자’ 자형 선정의 기준을 ‘『강희자전』의 자형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2000년에 공표한 ‘기초 한자’의 자형 중에서 속자를 정자로 조정하였음을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10개의 한자로, 즉 ‘强, 凉, 姊, 絶, 隣, 糞, 况, 戲, 栢, 兎’의 자형을 ‘強, 涼, 姊, 絶, 鄰, 糞, 况, 戲, 柏, 兔’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검정기준』의 한문과 교과서 ‘검정기준’ 부분에서는 한문교과서를 검정할 때에 위의 ‘편찬상의 유의점’에서 제시한 자형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으며,¹⁵⁾ 교사용 지도서의 편찬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하게 언급하였다.¹⁶⁾ 즉 교과서 검정을 진행할 때에, 교과서에서 제시한 자형이 『강희자전』의 자형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을 주문한 것이다.

2012년 한문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 기준’에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의 ‘기초 한자’ 자형 확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일례로 2012년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중학교 한문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교과서 인정기준’ 중 한자 자형과 관련하여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⁷⁾

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07, p.41.

15)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07, p.77.

Ⅵ. 표기·표현 및 편집	18. 한자의 자형(字形)은 편찬상의 유의점에 제시한 자형을 충실히 따랐는가?
------------------	---

16)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기준』, 2007, p.147.

Ⅵ. 표기·표현 및 편집	17. 한자의 자형(字形)은 편찬상의 유의점에 제시한 자형을 충실히 따랐는가?
------------------	---

17) 이 외에 2012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인정도서 심사 기준의 ‘4. 한

4. 내용의 수준과 범위	
(4) 한자의 자형(字形)은『강희사전(康熙字典)』의 자형을 기본으로 한다. 18)	

Ⅲ.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12. 문법 용어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에 준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사용하였으며, <u>한자의 자형(字形)은 편찬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자형을 충실히 따랐는가?</u> 19)
-----------------------------	---

여기에서 제시한 자형 확정의 기준은 2007년의 『검정기준』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즉 ‘『강희사전』의 자형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이상에서 2000년 이후 ‘기초 한자’의 자형 확정 기준에 대해 교육부에서 제시한 자료인 2000년의 『조정 백서』, 2002년과 2007년의 『편수 자료』, 2007년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및 2012년의 『2009년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에 따른 인정도서 심사 기준』 등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07년의 『편수 자료』까지는 ‘한자의 자형은 본체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강희사전』의

문(한문 I, 한문 II)’에서도 아래와 같이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의 기준과 동일하게 제시하였다.(전라북도교육청,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에 따른 인정도서 심사 기준』, 2012.)

Ⅲ.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13. 문법 용어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에 준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사용하였으며, <u>한자의 자형(字形)은 편찬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자형을 충실히 따랐는가?</u>
-----------------------------	---

- 18) 강원도교육연구원, 『2012~2013년 강원도교육청 인정대상도서 교과별 인정 기준-붙임2-한문』, 2012, p.2.
- 19) 강원도교육연구원, 『2012~2013년 강원도교육청 인정대상도서 교과별 인정 기준-붙임2-한문』, 2012, p.4.

자형을 기준으로 하되 현재 널리 통용되는 자형을 고려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2007년 『검정기준』부터는 『강희자전』의 자형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즉 2000년 『조정백서』에서 제시한 기준이 가지는 모호성을 인정하면서, 2007년 『검정기준』부터는 이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 『조정백서』의 자형 확정 기준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은 한자학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모호한 개념인 ‘본체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 널리 통용되는 자형을 고려한다.’라고 하여 俗字나 異體字도 ‘기초 한자’의 자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²⁰⁾ 여기서 ‘본체자’는 ‘본뜻에 바탕하여 만들어진 글자’를 뜻하는 ‘本字’로 이해할 수 없으며,²¹⁾ ‘異體字나 俗字가 아니면서 전통시대부터

20) 양원석, 「한국의 漢字 字形 規範化 方案 試論」, 『Journal of Korean Culture』 17,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2011, pp.319-322.

21) ‘本字’는 그 글자가 만들어졌을 때 가지고 있던 원래 의미를 자형에서 표현하고 있는 글자를 말하는 것으로 ‘본뜻에 바탕하여 만들어진 글자’이다. 만약 『조정백서』에서 자형 표기 원칙으로 제시한 용어인 ‘본체자’가 ‘本字’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기초 한자’의 자형은 ‘본뜻에 바탕하여 만들어진 글자’의 자형에 근거하여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止’는 갑골문 𠄎, 𠄏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발을 뜻하는 ‘趾’의 本字이다. 그런데 발을 뜻하던 ‘止’가 ‘그치다’의 뜻으로도 쓰이게 되자 본뜻을 보존하기 위해 ‘趾’를 만든 것이다. 즉 ‘趾’의 本字는 ‘止’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백서』의 ‘본체자’가 ‘本字’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적용한다면, 발을 뜻하는 ‘趾’의 자형은 ‘止’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康熙字典』에서 제시한 ‘本字’는 또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즉 『說文解字』의 자형과 『康熙字典』의 자형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설문해자』의 자형을 ‘本字’라고 하였다. 이것은 ‘溫’과 ‘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강희자전』은 「水部」 ‘溫’에서 日 형태의 ‘𤑔’을 正字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溫’은 「水部」에서 『說文』溫本字.’라고 하여 ‘溫’은 ‘溫’의 本字라고 하였다. 즉 『康熙字典』은 『설문해자』 「水部」에서 溫에 대해 ‘從水溫聲’이라 하여 소전 𤑔 형태인 𠄎 형태를 따른 ‘溫’을 ‘溫’의 本字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溫’과 ‘𤑔’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강희자전』에서 ‘本字’와 ‘正字’를 구분하여 설명한 경우, ‘本字’는 주로 『설문해자』의 소전 자형을

현재까지 正字(正體字)로 인정받는 字形²²⁾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2000년의 『조정 백서』에서 부칙으로 제시한 ‘『강희자전』의 자형을 기준으로 하되……’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해 보면, 2000년의 『조정 백서』에서 언급한 ‘한자의 자형은 본체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곧 ‘『강희자전』의 正字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07년 『검정기준』에서는 2000년 『조정 백서』의 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강희자전』의 자형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강희자전』의 어떤 자형을 기본으로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강희자전』에는 동일한 한자가 여러 자형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정기준』의 ‘비고’ 부분에서 ‘속자를 정자로 조정’한다고 밝혔으며, 또 2000년의 『조정 백서』에서 언급한 ‘본체자’는 ‘正字’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2007년 『검정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인 ‘『강희자전』의 자형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것은 ‘『강희자전』의 正字 자형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2000년 『조정 백서』 및 2007년 『검정기준』에서 제시한 자형 확정 원칙은 ‘『강희자전』 正字 자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검정기준』에서 이러한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로 제시한 10개의 자형 중 『강희자전』의 正字 자형이 아닌 것을 찾을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하여 ‘기초 한자’ 字形 수정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따른 자형’을 가리키는 것이다.

요컨대, ‘기초 한자’ 자형 확정 원칙에서 사용한 용어인 ‘本體字’를 ‘本字’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22) 양원석, 「한국의 漢字 字形 規範化 方案 試論」, 『Journal of Korean Culture』 17, 한국어문학회국제학술포럼, 2011, p.320.

Ⅲ.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字形 수정 양상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 이후의 ‘기초 한자’ 자형 확정 of 일차적인 기준은 『강희자전』의 正字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강희자전』의 정자라는 기준이 ‘기초 한자’의 자형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양상은 어떠한지에 대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검토의 대상은 2007년의 『검정기준』에서 기존의 ‘기초 한자’ 자형을 조정하여 제시한 10개의 한자 자형이다. 이를 대상으로 하여, 2000년에 조정 발표된 ‘기초 한자’의 자형, 2002년의 『편수 자료』에서 수정하여 제시한 자형, 2007년의 『검정기준』에서 수정하여 제시한 자형, 그리고 『강희자전』의 正字의 자형을 상호 비교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²³⁾

1. 중학교용 기초 한자

【 强 】²⁴⁾

기초 한자	편수 자료	검정기준	강희자전
强	强	強	強

‘기초 한자’와 『편수 자료』에서는 强으로 제시하였고 『검정기준』에서는 強으로 제시하였다. 『강희자전』에서는 弘의 형태를 따른 強을 정자로 보았고 口의 형태를 따른 强에 대해 ‘『(說文)徐註』 同強.’이라 하여 强을 이체자로 보았다.

23) 이하 한자 자형의 분석 순서는 2007년 『검정기준』에서 중학교·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제외자’로 분류한 것을 따라 ‘중학교용 기초 한자’, ‘고등학교용 기초 한자’, ‘제외자’ 순서로 제시하겠다.

24) 이하 표제자는 2000년 조정 발표된 ‘기초 한자’의 자형으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기초 한자’ 強을 『검정기준』에서 強으로 수정한 것은 『강희사전』의 정자라는 기준에 부합한다.

【 涼 】

기초 한자	편수 자료	검정기준	강희사전
涼	涼	涼	涼

‘기초 한자’와 『편수 자료』에서는 涼으로 제시하였고 『검정기준』에서는 涼으로 제시하였다. 『강희사전』에서는 涼에 대해 ‘『正韻』 涼, 通作涼.’이라 하여, 水를 따른 涼이 정자이고 涼은 이체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초 한자’ 涼을 『검정기준』에서 『강희사전』의 정자와 동일한 형태인 涼으로 수정 제시한 것은 『강희사전』의 정자라는 기준에 부합한다.

참고로 彳와 冫을 부건으로 사용하는 글자의 정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減과 決에 대해 살펴보겠다. ‘기초 한자’에서는 減과 決을 제시하였는데, 『강희사전』에서는 水를 따른 減과 決을 정자로, 彳을 따른 減, 決을 이체자로 보았다.²⁵⁾ 그러므로 ‘기초 한자’의 減과 決은 『강희사전』의 정자와 동일한 형태이다.

【 姉 】

기초 한자	편수 자료	검정기준	강희사전
姉	姉	姉	姉

25) 『강희사전』의 減에서 ‘『集韻』 俗作減, 非.’라 하고, 減에서 ‘『玉篇』 俗減字.’라 하여 소전 𠂔 형태를 따른 減이 정자이고 ‘從彳’의 減은 減의 이체자로 보았다. 決에서도 ‘『玉篇』 俗決字.’라 하여 소전 𠂔 형태를 따른 決이 정자이고 決은 決의 이체자로 보았다.

‘기초 한자’와 『편수 자료』는 모두 市(불) 형태를 따라 姉로 제시하였고, 『검정기준』에서는 姊로 제시하였다. 한편 『강희자전』에서는 姊를 正字로 보았고 姊는 姊의 이체자로 보았다. 즉 『강희자전』의 「女部」에서 姊 다음에 姊를 배열한 후, 姊에 대해 ‘同上(姊를 가리킴.)’이라 하여 姊를 正자로 삼았고 姊를 이체자로 삼았다.

그러므로 ‘기초한자’와 『편수자료』의 姊 자형은 『강희자전』의 正자에 해당하고, 『검정기준』에서 새롭게 제시한 姊는 『강희자전』의 이체자에 해당한다. 이것은 『강희자전』의 正자를 따른다는 기준과 ‘속자를 正자로 조정’하였다는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 ‘기초 한자’에서는 『강희자전』의 正자의 자형인 姊를 제시하였으나, 『검정기준』에서 이를 수정하여 『강희자전』의 이체자 자형인 姊를 제시한 것이다.

【 絶 】

기초 한자	편수 자료	검정기준	강희자전
絶	絶	絶	絶

‘기초 한자’와 『편수 자료』는 모두 色 형태를 따라 絶로 제시하였고, 『검정기준』에서는 絶로 제시하였다. 『강희자전』에서는 絶을 正자로 絶을 이체자로 보았다. 즉 『강희자전』은 絶에 대한 설명에서 ‘『廣韻』 絶作絶, 非.’라고 하여 絶에서 ‘刀’를 쓰지 않고 ㄅ 형태를 쓴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기초 한자’의 絶을 『검정기준』에서 『강희자전』의 正자와 동일한 형태인 絶로 수정한 것은 『강희자전』의 正자라는 기준에 부합한다.

2. 고등학교용 기초 한자

【 隣 】

기초 한자	편수 자료	검정기준	강희사전
隣	隣	鄰	鄰(鄰)

‘기초 한자’와 『편수 자료』에서는 隣으로 제시하였고, 『검정기준』에서는 鄰으로 제시하였다. 『강희사전』에서는 鄰을 정자로 삼고 隣을 이체자로 보았다. 즉, 『강희사전』에서는 隣에 대해 ‘『廣韻』 俗鄰字.’²⁶⁾라고 하였고, 鄰에 대해서는 ‘『正字通』 本作鄰, 隸作隣, 今通作鄰.’²⁷⁾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鄰을 鄰의 本字, 隸變으로 인해 생긴 隣을 鄰의 俗字라 지칭한 것이다. 그러므로 『강희사전』에서는 鄰을 正字로 삼았고 隣과 鄰을 이체자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기초 한자’의 隣을 『검정기준』에서 『강희사전』의 정자와 동일한 형태인 鄰으로 수정한 것은 『강희사전』의 정자라는 기준에 부합한다.

- 26) 『광운』에서는 鄰을 정자로 보고 ‘俗作隣’이라 하여 隣을 이체자로 보았다. 이에 대해 『강희사전』에서는 隣에 대해 ‘『廣韻』 俗鄰字.’라고 注하였다. 그러므로 『강희사전』이 A글자에 대해 小注에서 ‘俗B字’라고 한 것은 ‘A라는 글자는 B의 俗字이다’, ‘B가 正字이고 A가 이체자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 27) 『정자통』에서는 鄰에 대해 ‘本作鄰, 釋文通作鄰. …… ○ …… 隸作隣.’이라 하였다. 그리고 소전 隣^隣 형태를 따른 鄰(隣+阝)에 대해 ‘鄰本字’라 하였고, 隣에 대해 ‘俗鄰字’, 鄰에 대해 ‘俗作隣’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상을 정리하면 『정자통』에서는 鄰을 정자로 보고 鄰이나 鄰을 鄰의 本字로 보았으며, 예변 이후의 隣을 鄰의 이체자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獎 】

기초 한자	편수 자료	검정기준	강희자전
獎	獎	獎	獎

‘기초 한자’와 『편수 자료』에서는 獎으로 제시하였고, 『검정기준』에서는 獎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강희자전』에서도 獎을 정자로 제시하였다. 즉 ‘기초 한자’, 『편수 자료』, 『검정기준』, 『강희자전』의 자형은 모두 將과 大의 상하구조로 이루어진 동일한 형태이다. 그런데 『검정기준』에서는 ‘獎 → 獎 (‘犬→‘犾)’이라고 하여, 2000년의 ‘기초 한자’를 犬 형태를 따른 獎²⁸⁾으로 보고서, 이를 大를 따른 獎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이것은 기존 ‘기초 한자’의 자형에 문제가 없는데도 『검정기준』에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며, 또한 그 수정안도 결국 기존의 ‘기초 한자’의 자형과 동일한 것이다. 이는 『검정기준』에서 기존의 ‘기초 한자’의 자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정안을 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况 】

기초 한자	편수 자료	검정기준	강희자전
况	况	况	况

‘기초 한자’에서는 况으로 제시하였고, 『검정기준』과 『편수 자료』에

28) 『강희자전』에서는 犬을 따른 獎과 大를 따른 獎과 구분하였다. 즉, 犬을 따른 獎은 ‘玉篇』嗾犬厲之也. 今作犾. 『廣韻』說文本作犾.’이라 하여 ‘개가 짖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 獎이 정자이고 犾과 犾이 이체자라고 하였다.

서는 況으로 제시하였다. 『강희자전』에서는 ‘밭어사’의 경우에는 二 형태를 따른 况을 정자로 보았고²⁹⁾ ㄱ 형태의 況은 況의 이체자로 보았다.³⁰⁾ 그리고 ㄱ 형태를 따른 況은 ‘寒水’의 의미를 나타낼 때의 정자로 보았다. 그러므로 『강희자전』에서 ‘하물며’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자형은 二 형태를 따른 况이 정자이고, 況이나 況과는 구별되는 자형이다.³¹⁾

이상으로 볼 때 『검정기준』에서 기존 ‘기초 한자’ 況을 況으로 수정 제시한 것은 『강희자전』의 정자를 따르지 않은 경우이다. 그러므로 『강희자전』의 정자를 따른다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밭어사로 쓰이는 ‘기초 한자’ 況은 况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 戲 】

기초 한자	편수 자료	검정기준	강희자전
戲	戲	戲	戲(戲)

‘기초 한자’와 『편수 자료』에서는 戲로 제시하였고, 『검정기준』에서는 戲로 제시하였다. 『강희자전』에서는 戲(戲)를 정자로 戲(戲)를 이체자로 보았다. 즉 『강희자전』의 戲에 대한 설명을 보면 ‘『正字通』 俗戲字.’라 하여, 戲는 戲의 이체자로 보았다.

그러므로 ‘기초 한자’ 戲를 『검정기준』에서 『강희자전』의 정자 형태

29) 『廣韻』『集韻』『韻會』『正韻』發語辭. 『詩·小雅』况也. 永歎. 從二從兄, 與況字少異.

30) 『玉篇』 俗況字. ○ 按況本從水, 亦從二作况. 今從ㄱ, 當卽況况二字之譌. 况從二從兄.

31) 『강희자전』에서 况과 況, 況을 구별하였음은 「辨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강희자전』의 「辨似」중 ‘三字相似’에서 二 형태의 况은 밭어사, ㄱ 형태의 況은 ‘寒水’를 나타내는 정자이고 況은 ‘寒水’를 나타내는 況의 이체자임을 설명하였다.

인 戲로 수정한 것은 『강희자전』의 정자라는 기준에 부합한다.

3. 제외자³²⁾

【 栢 】

기초 한자	편수 자료	검정기준	강희자전
栢	栢	柏	柏

‘기초 한자’의 제외자와 『편수 자료』에서는 栢으로 제시하였고, 『검정기준』에서는 柏으로 제시하였다. 『강희자전』에서는 柏을 정자로 보았으며, 栢을 이체자로 보았다. 즉 『강희자전』에서는 栢에 대해 ‘俗柏字.’라 하였고, 柏에 대해 ‘俗作栢, 非.’라 한 것으로 보아, 柏이 정자이고 栢은 柏의 이체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초 한자’ 중 제외자 栢을 『검정기준』에서 『강희자전』의 정자 형태인 柏으로 수정한 것은 『강희자전』의 정자라는 기준에 부합한다.

【 兎 】

기초 한자	편수 자료	검정기준	강희자전
兎	兎	兔	兔

‘기초 한자’의 제외자와 『편수 자료』에서는 兎로 제시하였고, 『검정기준』에서는 兔로 제시하였다. 『강희자전』에서는 兔를 정자로 보았으며 兎

32) 2000년 ‘기초 한자’를 조정할 때에 새로 추가되거나 기존의 ‘기초 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기초 한자’의 뒤에 <추가자제외자 대비표>에 제시하였다. 『검정기준』에서 제시한 ‘제외자’는 2000년 조정 발표된 ‘기초 한자’의 뒤에 제시된 <추가자제외자 대비표>의 한자 중 ‘제외자’를 말한다.

를 이체자로 보았다. 즉 『강희자전』에서는 兎에 대해 ‘『正字通』俗兎(兎임.)字.’라 하였고, 兎에 대해서는 ‘『韻會』歐陽氏曰, 兎從死字加一點. 俗作兎, 非.’라고 하여, 兎 형태가 정자이고 兎 형태가 이체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초 한자’ 중 제외자 兎를 『검정기준』에서 『강희자전』의 정자 형태인 兎로 수정한 것은 『강희자전』의 정자라는 기준에 부합한다.

이상에서 2007년 『검정기준』에서 『강희자전』의 正字 자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기존의 ‘기초 한자’ 자형을 조정하여 제시한 10개의 한자 자형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2007년 『검정기준』에서 수정 제시한 자형 중 『강희자전』의 정자로 조정한다는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는 ‘强→強, 涼→涼, 絶→絶, 隣→鄰, 戲→戲, 栢→柏, 兎→兎’이고,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姉→姊, 況→況’이며, ‘獎→獎’의 조정은 기존 ‘기초 한자’의 자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시한 것이었다.

‘姉→姊’의 경우 『검정기준』에서 姊로 수정하였지만 기존 ‘기초 한자’의 형태인 姉가 『강희자전』의 정자에 해당하므로, 『강희자전』의 정자를 따른다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기초 한자’의 자형인 姉로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

‘況→況’의 경우 ‘기초 한자’ 況과 『검정기준』의 況은 모두 『강희자전』의 정자가 아니며, 『강희자전』의 정자를 따른다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況 형태로 수정해야 한다.

한편 『검정기준』에서 ‘獎→獎(‘犬’→‘宀’)’이라고 하며 수정된 獎의 형태를 제시하였지만, 獎은 기존 ‘기초 한자’의 자형과 동일한 것이므로 수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기초 한자’와 『검정기준』의 한자 자형은 이미 『강희자전』 정자 자형과 동일하다. 이는 기존의 ‘기초 한자’의 자형이 犬을 따른 獎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宀을 따른 獎으로 오인한 것이다.

2007년의 『검정기준』은 2000년에 제시된 ‘기초 한자’ 자형 확정 기준의 모호성을 파악하고, 이를 ‘『강희자전』의 자형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기초 한자’ 중에서 『강희자전』 정자 자형을 따르지 않은 것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한문 교과서에서 『강희자전』 정자 자형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심사할 것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2007년의 『검정기준』은 그동안 한자의 표준 자형에 대한 인식이 소홀하였음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기초 한자’의 표준 자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관련 연구를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몇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2007년의 『검정기준』에서 제시한 자형에 대한 정비 및 수정안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IV. 결론

본 논문은 2000년에 조정 발표되어 현재 한문 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字形 확정 기준을 확인하고, 2000년 이후 진행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형 수정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론에서는 먼저 2000년의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백서』(『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2002년의 『교과서 편수 자료』, 2007년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12년의 『2009년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에 따른 인정도서 심사 기준』의 내용 중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형 확정 기준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형 확정

의 일차적인 기준은 『강희자전』의 正字 字形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2000년에 조정 발표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字形이 이후에 어떠한 수정 양상을 보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2007년의 『검정기준』에서 『강희자전』의 正字 字形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기존의 ‘기초 한자’ 字形을 조정하여 제시한 10개의 한자 字形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2000년 조정 발표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字形은 2002년 『편수 자료』와 2007년 『검정기준』을 통하여 수정되었으며, 특히 2007년의 『검정기준』에서는 2000년에 조정 발표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중 『강희자전』의 俗字 字形을 따라 제시되었던 한자를 『강희자전』의 正字 字形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중에서 ‘姉→姊’와 ‘況→沉’의 수정안은 『강희자전』의 正字가 아닌 것으로 수정된 것이었으며, ‘糞→糞’의 수정안은 2000년의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字形을 잘못 파악하여 제시한 것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 『검정기준』에서는 ‘2000.12.30 교육부에서 공표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중 일부 글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기로 수정한다.’라고 하면서 10개 한자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2000년의 ‘기초 한자’ 字形은 수정을 거쳐 2002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행한 『편수 자료』에 제시되었다. 즉 2000년의 ‘기초 한자’는 2002년의 『편수 자료』에서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검정기준』에서는 2002년 『편수 자료』의 ‘기초 한자’ 字形을 고려하지 않고 2000년의 ‘기초 한자’ 字形을 대상으로 수정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또한 2000년 이후 한자 字形 확정 기준으로 『강희자전』의 字形만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다. 물론 『강희자전』은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한자 字形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³³⁾ 앞서 살펴본 况의 경우처럼 『강

33) 김영옥, 「漢文 教育用 基礎 漢字 字形 標準化 研究」, 고려대대학원 박사학

회자전』의 정자 자형이 현재에 자주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현재의 문자 생활의 표준으로 삼기에는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다. 이러한 자형 확정 기준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 文獻>

- 강원도교육연구원, 『2012-2013년 강원도교육청 인정대상도서 교과별 인정기준-붙임2』, 2012.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07.
- , 『교과서 편수 자료Ⅱ-1 인문·사회 과학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초판.
- , 『교과서 편수 자료Ⅱ-1 인문·사회 과학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7. 2판.
- ,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백서』, 2000.
- ,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2000.
- 전라북도교육청, 『2009년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에 따른 인정도서 심사 기준』, 2012.
- 潘重規 主編, 『玉篇索引』, 臺北: 國立中央圖書館, 1983.
- 楊劍橋, 『實用古漢語知識寶典』,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3.
- 張玉書 纂著, 『康熙字典』, 北京: 中華書局, 1958.
- 張湧泉, 『漢語俗字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10.
- 中國大百科全書出判社 編纂委員會, 『中國大百科全書語言文字』,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判社, 1988.
-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 강혜근, 「異體字란 무엇인가?」, 『중국학논총』 11, 한국중국문화학회, 2001.
- 김영옥,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와 한문 교과서의 자형 비교 연구」, 『한자한

위논문, 2012, pp.33-41. 참고.

- 문연구』 7,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2011.
- ,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형 연구 - 『강희자전』 자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37, 한국한문교육학회, 2011.
- , 「漢文 教育用 基礎 漢字 字形 標準化 研究」,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 양원석,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字形과 字序에 대한 管見」, 『동양한문학 연구』 28, 동양한문학회, 2009.
- , 「한국의 漢字 字形 規範化 방안 시론」, 『Journal of Korean Culture』 17,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2011.
- 이경원, 「異體字 等級 屬性 研究의 제반사항 및 그 方法論」, 『중국어문학논집』 25, 중국어문학연구회, 2003.
- 이규갑, 「삼국사기의 이체자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8, 중국어문학연구회, 1996.
- 이돈석,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한문 교과서 『검정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의 특징과 문제점」, 『동방한문학』 40, 동방한문학회, 2009.
- 장호성,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문제 -한문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연구 개발에 즈음하여-」, 『동방한문학』 29, 동방한문학회, 2005.
- 정우상, 「한문과 교육정책과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선정」, 『한자한문교육』 창간호,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994.
- 조선일보, 1972년 8월 17일.
- 呂 浩, 「物名考異形字及相關問題」, 『韓國漢字研究』 1, 경성대 한국한자연구소, 2009.
- 兒島慶治, 「日本語教育と韓國の漢字字形 - 184個の獨立字形」, 『日語教育與日本文化研究』, 臺灣日語教育學會編, 2006.

Abstract

*Analyses of the Criteria for Decision on, and Amendment Aspects of, Shapes of
‘the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Chinese Classics Education’ / Kim Young Og**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riteria for decision on shapes of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Chinese classics education and the aspect in which the shapes of characters were amended according to the criteria.

In the main subject, the materials after 2000 when the criteria for decision on shapes of ‘The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Chinese classics education’ were looked into and, on the basis of the materials, the aspects, in which shapes of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Chinese classics education’ were modified, were examin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criteria for decision on shapes of ‘The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Chinese classics education’ was primarily based on the shapes of Kangxizidian(康熙字典) block letters from 2010 to the present.

After shapes of ‘The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Chinese classics education’ were reported in 2000, they were modified and proposed in 2002 and 2007. Especially, in 2007, partial shapes of the existing ‘The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Chinese classics education’ were modified and proposed in the shapes of Kangxizidian of block letters. Accordingly, in this paper, the character shapes between 2000 and 2007 was mutually compared and the aspects of changes in character shapes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at,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racter shapes in 2007 did not tak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 shapes modified and proposed in 2002 and a part of the character shapes modified and

* Instructor at a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 angelok72@hanmail.net

proposed did not accord with the criteria for decision on the character shapes.

‘The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Chinese classics education’ is the materials constituting the most basic foundation in Chinese classics education. Therefore, the examination of the criteria for decision on shapes of ‘The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Chinese classics education’ and study on applying them on a normative basis would be necessary to continue in the future.

【Key words】 The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Chinese Classics Education, Shapes of <The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Chinese Classics Education>, Shaped the criteria for confirmed, Authorized Chinese Literature Textbooks based on the Revised Educational Curriculum in 2007, instructions for publishing textbooks and standards for authorizing, Chinese characters in printed form, Kangxizidian(康熙字典).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일 : 6월 6일, 게재확정일 : 6월 13일